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 『국가기록원 중장기 전시 전략 수립』 토론회 -

2021. 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목 차 ||

I . 토론문 1(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성준)-----	1
1. 일반적인 논의들	1
2. 현실적인 문제들	3
II . 토론문 2(서울기록원 원종관)	4
1. 전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4
2. 국가기록원은 스스로 전시를 어떻게 생각하나	4
3. 전시주제의 사전 기획 및 연구	5
4. 전시의 형식과 기법	7
5. 기 타	9
III . 토론문 3(서울여자대학교 이주형)	10
1. 전시 기획을 위한 전제	10
2. 전시 기획의 방향성	10
3. 전시 환경 변화	11
4. 새로운 기획전시의 방향	13
5. 전시 기획 방향의 비교	13

제 1 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국가기록원 중장기 전시전략>_토론문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성준 학예연구관

1. 일반적인 논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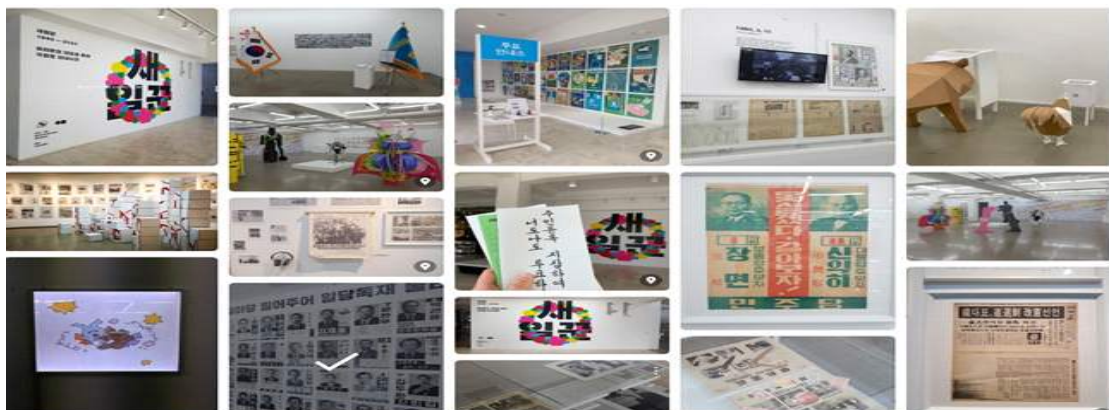
○ 국가기록원에서 어떤 전시를 해야 하는가?

- 국가기록원은 박물관, 미술관과 다른 목적을 가진 기관
 - 일반 대중 상대 전시 개최를 중심 기능으로 하는 박물관 등과 국가기록원은 목적이 다름
- 국가기록원에서 잘 할 수 있는 방식의 전시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기록원의 전시 스타일

- 전시성격 구분 필요
 - 박물관, 미술관과 비슷한 성격의 전시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개최할 만한 주된 전시는 아니다.
 - 기록에 바탕한 아카이브 전시가 국가기록원 전시의 본질

☞ 일민미술관 : <새일군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 전시 사례



- 중앙선관위에서 개최한 <새일군 1948-2020> 특별전은 공공기관의 아카이브를 활용한 미술 전시라는 점에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지만, 매우 특수한 계기라고 봐야할 듯함 (매번 이런 전시를 개최할 수는 없음)

<출처> 일민미술관 홈페이지 (illmin.org)notice>새일군/ goole.co.kr/search?q=일민미술관+새일군

- 박물관 등에서도 전시부서 전시(주제 중심 전시)와 유물부서 전시(“기증특별전”, “소장유물전” 등)는 성격이 다르다

○ 전시 콘텐츠에 다시 주목한다면

- ‘몇십 주년’ 등 역사적 계기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기록원 자체적으로 수집, 발굴한 기록물을 기반으로 전시하는 것
- 기록원 사업 가운데 언론에서 많이 주목 받고, 일반 국민의 관심을 받은 사업을 떠올려보시길
- 특별히 발굴, 수집한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역사적 계기에만 우선적으로 주목한 전시는 주목 받기 어렵다.

○ 기록물 전시의 매력 높이기

- 기록물 전시는 대단히 매력적인 전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화 하고, 홍보의 계기로 삼는지 등이 중요
-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했고, 기관의 정체성에도 맞았으며, 자료수집, 전시, 웹서비스 제공 등을 잘 융합한 메모리서울프로젝트의 사례: <1995 년 서울, 삼풍> 등
- 영상 기록의 사례이지만,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88/18>, <모던코리아> 등의 사례: “Found Footage Film¹⁾ Making(영화장르)”

☞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 <모던코리아> 사례 : 아카이브 다큐로 역사의 중간 지대를 찾다



- <모던 코리아>는 KBS에서 현대사 아카이브 오픈 프로그램으로 창립 이래 쌓아온 수십년간의 방대한 아카이브 영사을 이용한 새로운 문법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모던 코리아'이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1980년대 말의 대한민국의 다양한 자료화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 함.

<출처> 다큐인사이트-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 코리아 / 모던 코리아 나무 위키

1) 일반적으로 Found Footage Crti에서 수행한 500개의 Found Footage 영화분석에 따라 1인칭 시점, 의사 다큐멘터리, 모큐 다큐멘터리, 뉴스영상 또는 감시 영상 등 4가지 영화 기법 중 하나를 사용한다.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 뿐 아니라, 다른 기관 기록, 민간 기록을 적극적으로 함께 전시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수용층의 문제

- ‘일반 국민’을 주된 관람자로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조금 더 구체화된 ‘타겟 오디언스’ 설정이 필요하다
- (제도권/비제도권) 역사학자, 역사 및 기록 마니아 등 기존 국가기록원 이용자층을 ‘핵심고객’으로 생각하고 고려하는 일도 필요함

2. 현실적인 문제들

○ 현실적인 문제

- 인력 충원 문제
 - 인력 충원은 중요한 일이고 도움이 되겠지만, 조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함
 - ☞ 기존 부서(서비스정책과) 소속인가? 장차 독립적인 부서의 조직화를 염두에 둘 것인가? (독자적인 전시부서가 기록원에 필요한가?)
- 유능한 학예사, 디자이너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히게 될 사람들도 기존 조직의 틀 내에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가 중요

○ 전시장소의 문제

- 관람객 문제 등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문제
- 다양한 지역의 기관과 협업하여 전시개최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기록원의 품격에 맞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지속적인 전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대관료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문제)
- 국가기록원의 기존 시설(분관 등)을 활용하거나 확충하여 전시공간화하는 것은 어려운가?
- 어디서 전시하더라도 디지털화는 대단히 중요

○ 국가기록원내 타 부서 협력

- (홍보) 국가기록원 차원의 사업 및 홍보의 방향 등과 같이 맞물려가야 함
- (기록연구) 기록 연구 부서의 성과에 기반하고 연계되어야 효과적임
- (전산) 홈페이지 등에서 적절하게 홍보되고 활용되어야 함.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국가기록원 중장기 전시전략 수립>_토론문 2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원종관

1. 전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 아카이브가 ‘아카이브 밖에서’ 대중화, 일반화, 다양화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이 전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는 것은 반가운 일
- 특히 몇 년 사이 뮤지엄(박물관, 미술관)과 도서관 등 여러 문화기관이 아카이브를 주제, 소재, 방법론, 관점으로 다양하게 쓰면서 괄목할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아카이브는 역사적인 기록이나 자료, 그것을 보관하는 기관 이상의 의미를 획득 중. 관련한 시장과 영역의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아카이브에 위기이기도 기회이기도 한데 이를 계기삼아 아카이브의 정체성과 기관의 지향을 (재)확인할 수 있음

2. 국가기록원은 스스로 전시를 어떻게 생각하나

- ‘최점점의 기록정보서비스’ (p.2)임에도 담당 인력 축소, 전문 큐레이터 및 디자이너 부재,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근속연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2008년 이후 10년 이상 전시 경험을 축적하였는데(SWOT 분석의 강점 strength)(p.5)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 레퍼런스가 될 만한 전시 사례는 잘 보이지 않음. 흥행 여부를 떠나 국가기록원(아카이브)만의 특징을 보여준 전시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와 설명을 요청
- 유관 문화기관과의 협력이나 공동주최는 가능하지만 국가기록원만의 성과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19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공동주최한 <3.1운동 특별전>의 관람객 성과(66만명)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최 기관인지, 자료제공 기관인지, 예산지원 기관인지. 관람객들이 그 전시를 국가기록원의 전시로 생각했을까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필요
- 전시를 통해 국가기록원의 기관 인지도를 제고, 향상하겠다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 ‘불러들이는’ 전시여야 함. ‘불러들이겠다면’ 교통과 접근성 말고도 다른 많은 고민을 해야 함.
- 전시가 교육과 학습을 넘어 여가와 오락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먼 곳의 전시를 찾는 일을 낯설어하지 않음. 또 국가기록원은 성남과 대전에 자체 전시 환경을 갖추고 있음

3. 전시 주제의 사전 기획 및 연구

- 시의성과 관심도를 반영한 사전 주제안 구성은 기관 운영의 큰 계획속에서 활용하
되 주제 자체에 대한 천착보다는 고유 관점의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00
주년’은 다른 문화기관도 활용할 소재이며 관점과 특성이 없다면 비슷한 시기의
‘유사 전시’에 매몰될 수도 있음
- 한편, 시의성이란 동시대(contemporary)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국가기록원만
의 입장과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00주년’ 기념 전시는 흥미롭
지 않음. 동시대성이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보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되, 남겨진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되게 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 가능
- 전시 주제 선정은 직관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관련 업무 연계(p.3)와 전시 프로
세스 확립(pp.22~24)의 차원이 아님. **기획전시는 사전에 충분히 연구된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전시기획 및 대상기록물 조사 → 주제선정 → 전시기획
및 대상기록물 조사’의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함. p.22에서 제시한 전시 업무 프로
세스에는 왜(why)가 보이지 않음. “왜 이 주제를 전시해야 하는지”, “왜 이 주제를
국가기록원이 전시로 다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예시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서울의 특징적 공간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글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세밀하게
기록하는 사업임.
- 조사는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함.

<출처> <https://museum.seoul.go.kr/archive/seoulLife/seoulLifeBsnsIntrcn.jsp>

- 과거에 개최했던 전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기획할 수도 있음. 특히 역사학적
관점보다는 시각문화 비즈니스나 문화, 예술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음.
예로 든 일민미술관과 중앙선관위의 <새일꾼> 전시는 그런 관점, 기획, 연출이 돋

보인 전시로 일부 연출은 과격적이었고 과감한 시도가 돋보였음. 특히 전시 개막 2년 전부터 예술인과 함께 교육, 학습, 공동창작 등의 사전 콘텐츠 제작 협업을 진행하며 공감의 범위를 넓혔고, 해당 기간에 만든 콘텐츠를 전시에도 활용했음.

- 제13회 광주비엔날레('21년 5월,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는 ‘광주와 5.18’이라는 주제를 예술적 시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풀었음. 문서(종이) 기록의 단편성을 극복하려는 문화·예술 관점의 전시를 아카이브도 시도해볼 필요. 기록과 자료보다 주제와 문제의식, 구성을 앞세워 기획을 한 결과물. 기존의 광주와 5.18에 대한 문제의식보다 진전된 전시를 선보임

☞ 제 13 회 광주비엔날레 :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마음> 전시 사례



이종 '2021 광주비엔날레'에서 작품 '영혼의 날' (사건 이후)

-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2020.5.18 민주화운동의 40주년을 기념하여 선보였던 다국적 프로젝트(MaytoDay)의 여정을 광주지역 작가들과 협업을 통한 전시<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를 개최함.
- 5.18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세대가 조우하는 회복의 메시지, 구국군광주 병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출처> 제13회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mayday.org/exhibition2021-gwangju)

- 국가기록원의 일 자체를 전시로 보여줄 수도 있음. 아카이브의 업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behind the scene’ 인데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면 기관 신뢰성, 아카이브 전문 기관에 대한 믿음을 인지시킬 수 있음. 미국 American Art Museum of Lunder Conservation Center 는 보존복원 공간 자체를 경험/관람 동선으로 설계했음.

☞ American Art Museum of Lunder Conservation Center 사례

Our Conservation Facility



The Lunder Conservation Center is the first art conservation facility that allows the public permanent behind-the-scenes of essential preservation work. Conservation staff for both the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s National Portrait Gallery are visible to the public through floor-to-ceiling glass walls that allow visitors to see all the techniques that conservators use to examine, treat, and preserve artworks.

The Center has six state-of-the-art laboratories and studios equipped to treat paintings, prints, drawings, in sculpture, folk art objects, contemporary crafts, decorative arts, textiles, and time-based media art. The center is located on the museum's main building and is not visible to the public, so track out the time-based art in the fourth floor of the Center.

- Frames Lab
- Paintings Studio
- Sculpture Lab
- Objects Lab
- Prints Lab
- Media Lab



<출처> <https://americanart.si.edu/art/conservation>

- 네덜란드 레이크스 뮤지엄은 Night Watch의 보존복원 과정을 중계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박물관과 보존복원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이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함

☞ 네덜란드 레이크스 뮤지엄은 Night Watch의 보존복원 과정을 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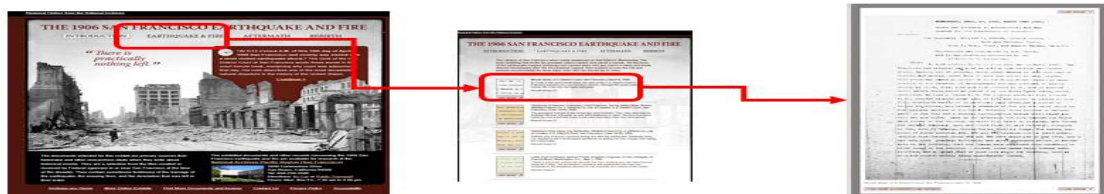
<출처> <https://www.rijksmuseum.nl/en/whats-on/exhibitions/operation-night-watch>

<https://www.nytimes.com/2021/06/23/arts/design/rembrandt-night-watch-artificial-intelligence.html?smid=url-share>

4. 전시의 형식과 기법

- 디지털(온라인) 전시의 성패는 첨단 기법과 연출의 문제는 아님. VR은 전시의 평면적 아카이빙에 머물러 있고, AR은 신기한 것 이상을 보여주는 것에 한계. 더해서 첨단 기법과 장치는 비싸며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도 감안해야 함.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곳에 ‘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함. 국가기록원 전시를 찾아오는 관람객이 신기한 관람 경험을 원할까,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
- 외국 아카이브의 online-exhibitions는 비교적 평면적인 형식의 온라인 컬렉션임. 다만 충분한 콘텐츠-컨텍스트의 연결 정보를 제공함

☞ 미국 국립기록관의 온라인 전시 사례: 1906 San Francisco Earthquake and Fire



- 전시 콘텐츠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재해 당시 샌프란시스코 내 혹은 연방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이관 받은 파일에서 선택하여 온라인 전시함.
- 지진 피해, 화재, 그 여파로 남은 황폐화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이 포함됨

<출처> 미국 국립기록관 홈페이지([archives.gov/exhibits](https://www.archives.gov/exhibits))

- 종이기록을 디지털로 보여주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디지털 기록(콘텐츠)의 디지털 전시 자체에 대한 고민 필요. 무한한 확장성과 중층의 연결성 등 **born-digital** 고유의 특성을 전시로 기획할 수 있음

☞ Born - Digital 가상 전시 예시_(1) : 서베이 2020 문장수집가



- 기획 wrm, wrmmatters.kr / 레벨나인, rebel9.co.kr/ 디자인 레벨나인 콘텐츠 후원 월간 <디자인>/ 웹사이트 survey2020.xyz
- 20세기 국내 그래픽 디자인 신을 둘러싼 담론을 낱설게 보기 위해 왓리얼리매터스 whatreallymatters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이하 wrm)와 레벨나인이 기획한 <서베이 2020 문장수집가>는 전시와 웹사이트 형식을 취함
- 2000년 이전 디자이너들의 발언이 실린 디자인 잡지 중 월간 <디자인>과 <디자인네트> <정글>에서 문장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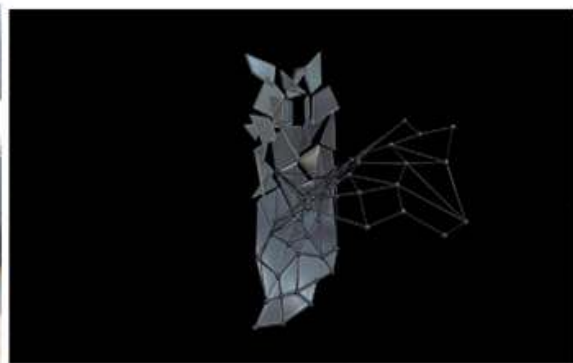
<출처>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7/81823

☞ Born - Digital 가상 전시 예시_(2) :

The AUDABI Art Gallery' s “Born - Digital ” exhibition opens to The Public Virtually



Cao Fei, The Odyssey of Li Nova, Episode 2: Tai Chi, 2020. Digital video, sound. Duration: 2 minutes, 16 seconds. Commissioned by The NYUAD Art Gallery.



Zach Blas, Contra-Internet Inversion Practice #3: Modeling Paranodal Space, 2016.

- <뉴욕 아부다비 아트 갤러리(NYU Abu Dhabi(NYUAD) Art Gallery)에서 최초의 가상 전시회 개최>
 - 14개의 기존 작품+4개의 새로운 커미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COVID-19 동안 특히 관련 있는 가상 및 화면 기반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
 - Born-Digital 작품전에서 예술가들이 디지털 풍경이 제공하는 제한과 자유를 모두 보여줌.

<출처> 뉴욕 Abu Dhabi(NYUAD) Art Gallery(nyuad.nyu.edu)

5. 기타

- 홍보: 홍보와 연계 프로그램은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함.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전시 개막 전후로 풍성하게 기획해야 함.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에 ‘영혼 없는’ 홍보 콘텐츠를 반복 알리는 것은 홍보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 정보와 콘텐츠가 범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용의 진실성을 쉽게 파악함. 특히, 교육 프로그램(성인과 학생, 어린이 등 대상 변별) 진행 자체가 홍보를 위한 중요한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
- 보도자료를 배포한 언론 보도(대부분 같은 내용을 매체만 다르게 보도됨)와 단순한 소셜미디어 노출 통계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홍보의 성과인지 자문해볼 필요
- 관람객 피드백과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은 <중장기 계획> 보다 정밀한 논리와 프로세스에 의해 설계해야 함. 단순한 의견 반영과 참여는 실제 전시 기획에 거의 도움이 안되고 참여의 성과도 저조할 수 있음
- 국가기록원은 근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을 많이 소장하고 있음. 다른 문화기관의 전시에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는 빈번하게 등장함
- 전시는 기록정보서비스 중 가장 트렌디하고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함. 담당자는 국가 기록원 ‘밖으로’ 나가 많이 보면서 안목을 높이고 연구 분석할 필요

제1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국가기록원 중장기 전시전략 수립>_토론문 3

- 국가기록원의 관람자 중심 전시기획을 위한 제언 -

서울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주형

1. 전시계획을 위한 전제

- 국가기록원 전시편찬팀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의 행태와 콘텐츠 이해에 대한 분석이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시장 현장에서 관람객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설문지 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찰을 통해 관람객의 행태특성(동반인의 구성, 연령대 별 주요 콘텐츠의 미디어체험 방식 및 반응특성, 콘텐츠별 관람소요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함)을 도출하고 인터뷰 /설문지 작성을 통해 전시 콘텐츠 이해도(전시주제 이해 및 콘텐츠 전달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정량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자료들은 전시 기획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전시기획의 방향성

- 토론내용을 종합하면 관람객 전시 체험의 방향성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는 자문위원분들이 강조하신 방향으로 일반적인 전시와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가기록원과 소장된 기록물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람객의 콘텐츠 체험 및 이해도 강화를 위해 서사성과 매체를 강조하는 방향이었습니다.
- 전시관의 관람객 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나 그러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유사 프로젝트 참여 및 전시를 관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관람객은 역사기록에 관한 전시공간을 방문하여 전시된 자료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사료적 호기심이 관람의 가장 큰 목적이요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물이 최고의 전시 오브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록물에 기술된 사실들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람객의 이해도 강화를 위한 전시 기획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전시환경 변화

-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과잉의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코디네이팅 되지 않은 정보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높은 피로감을 보이며 회피하려는 행태들을 보입니다.
- 2000년대 초반, 제 3의 공간이라는 책에서 크리스티안 미쿤다가 새로운 정보환경을 직시하고 전시공간에서의 과도한 정보제공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예견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영국,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파빌리온의 특징은 하나의 메시지를 시각이미지화 하여 관람객에게 능동적 체험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관람객 스스로 주관적 판단과 해석을 통해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사례 : 한국관, 스페인관, 영국관 예시



상하이엑스포 내 5대 인기관으로 손꼽힐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관의 모습. 한국관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기본 3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관에는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빛을 발하는 하나의 화분'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영국관은 자연과 도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korea.kr/news/policyNewsView.do?)

- 2012 년 여수 엑스포는 이러한 전시 트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관 중에서는 스위스관, 기업관 중에서는 삼성관이 방문객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전시 기획의 패러다임이 은유, 비유, (주관적)감성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2012 년 여수 엑스포 이미지



<출처>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expol012.kr/web/bbs/content.php?co_id=sub033)

- **은유**라는 개념은 전시콘텐츠를 예술과 공연의 형태로 가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격을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것은 전시주제 전달방식이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영상과 공연예술을 통해 매우 서사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의 예술을 감상하는 것 같은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유**은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이 체험하는 매체의 밀도를 낮춤으로서 기존 전시관에서 나타나던 일방적 정보전달의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과감한 콘텐츠의 생략,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람객이 공간과 관람과정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사색하고 쉬어가면서 전시메시지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관적 감성**이란 관람객이 전시메시지에 대해 수동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전시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 관람의 능동적 태도는 전시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관람 요소입니다.

4. 새로운 기록전시의 방향

- 관람객이 전시된 역사기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적 전시(Contextual Exhibition)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람객 입장에서 역사기록물이 생성되었던 시기의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물 주변에 적절한 매체를 통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러한 맥락적 정보는 거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미시적 관점, 즉 기록과 관련된 개인의 삶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관람객이 현재 관람객 자신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직관적 전시매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이러한 전시방식에 의해 역사 기록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주관적 해석을 통해 의미기억 형태로 마음속에 저장하여 오랫동안 전시관 관람행위와 콘텐츠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며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전시매체 또한 매핑 프로젝션 등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관람객이 역사 기록물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전시기획 방향의 비교

구 분	기획자(전시공급자) 중심	관람자(전시수용자) 중심
목적	기록물의 상징성 강조,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의미 강조	국민들의 국가기록물에 대한 이해, 기록물의 역사적 의미 전달
기능	일반적인 전시관과 차별화, 기록물 자체의 가치와 의미 부각, 지류 전시물의 유지/보관, 관람객의 객관적 사실 인식	기록물의 내용에 대한 맥락적 정보제공, 국가적 관점뿐 아니라 개인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 체험, 관람객의 주관적 해석
매체	쇼케이스 중심, 평면 및 입체매체 중심	관람객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보조적 디지털 매체, 영상매체 등
전시 프로그램	수집/보존처리, 수장고/서고,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열람실, 도슨트를 통한 스토리 전달